우리나라 국민1인당 평생 나무는 얼마나 쓰는가?

1인당 평생 18m 소나무 30년생 237그루, 년간 3.2그루 사용

우리 국민은 1999년에 폐재를 포함하여 2,940만m³의 목재를 사용하였다. 종이는 671만톤을 사용했으며 이를 목재로 환산하면 1,689만m³으로 총 목재 소비량은 4,629만m³이다. 이를 근거로 우리 국민 한 사람이 일생동안에 쓰는 목재를 환산하면 30년생 높이 18m의 소나무 237그루를 쓰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 1년간에는 약 1m³으로 3.2그루를 사용한다. 이와 같은 1년 동안 쓰는 나무를 키우려면 어린나무 10그루를 심어서 30년 이상 가꾸어야 한다.

그러나 국토면적의 65%를 차지하는 우리 산에서 나무를 공급한 것은 170만m³으로 전체 목재 소비량의 6.0%에 불과하다. 나머지 2,610만m³(14억$)은 미국, 뉴질랜드와 파프아뉴기니, 말레시아 등 열대산 목재를 수입하고 있다.

한 사람이 1년간 종이를 사용하는 양은 10년에 비하여 53kg 증가한 143kg를 소비한다. 이것을 나무로 환산하면 30년생 소나무 1.2본에 해당된다.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종이원료로 생산되는 펄프는 64만톤으로 자급률이 24%이며, 나머지 203만톤 12억$의 펄프를 수입하고 있다. 이와 같이 비싼 펄프를 수입하지 않고 국내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펄프생산 시설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.

고지 수거량은469만톤이며 회수율은 70.5%로 선진국보다 높다. 이점에 있어서는 우리 국민 모두는 재활용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. 그러나 아직도 219만톤의 고지를 수입하고 있으므로 보다 효율적으로 고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신문지, 백상지, 포장용지 등으로 분류하는 분리 · 수거가 필요하다.

참 고

국민 1인당 평생 목재 소비량

목재소비량
- 총 목재 소비량 : 29,398천m³(폐재포함, '99년)
- 총인구 : 46,858천명('99년)
- 1인 년간 목재 소비량 : 0.628m³
- 1인 평생 목재 소비량 : 46.7m³
  - 평생 목재소비량 : 1인 년간 목재 소비량×평균수명(74.4세, '97년)
- 입목본수량 : 150그루(강원도 소나무, 흉고직경 22cm, 수고18m)
  - 입목본수 산출 : 150그루 = 46.7m³÷0.3110m³

종이 소비량
- 1인 년간 종이 소비량(목재환산) : 0.360m³
- 1인 평생 종이 소비량(목재환산) : 26.8m³
- 입목본수량 : 87그루(강원도 소나무, 흉고직경 22cm, 수고18m)
  - 입목 본수 산출 : 87그루=26.8m³÷0.3110m³

평생 목재 사용량 : 237그루
- 강원도 소나무, 흉고직경 22cm, 수고18m

목재자급율 : 6.0%
펄프자급율 : 24.0%